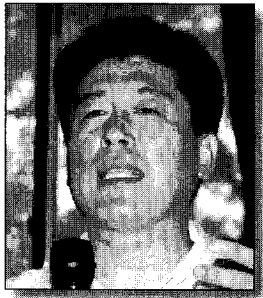


# 희망으로 설계하는 2002년 한국양육

이장희/축산기술연구소 연구사



이 장 희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사

임오(壬午)년 새 해가 밝아 사슴도 말처럼 많은 양육 농가에게 불굴의 의지와 용기 백배 해지는 한해로 축복되길 기대해 본다. 올해는 월드컵 축구, 아시안

게임 등 세계적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스포츠산업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양육산업을 세계 만방에 알려 양육 수출대국의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히 준비하자.

지금 우리는 누구도 예측키 어려운 급변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슴이란 동물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나 사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면 그곳에서는 꿈과 즐거움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축산의 다양한 축종 중에서도

젓소(홀스테인)가 100년 이상이나 축산을 대표하는 축종으로 세계 식육자원(고기와 우유)을 공급하여 왔다면 앞으로 새 천년은 사슴이 축산을 대표하는 축종으로 자리잡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슴은 큰 쥐 정도 크기의 마우스디어(약 5kg)에서부터 코끼리보다 약간 적은 무스디어(800kg)까지 150여종이 넘는 품종이 세계적으로 산재되어 다양한 유용 유전자의 개발여지와 함께 세계 축산의 으뜸 축종으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우스디어는 애완용 및 시험용 동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반추동물 및 유제류 동물시험에 이보다 더 요긴한 시험동물은 없을 것이고 무스사슴은 고기생산성이 소보다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슴으로 대체될 수 없는 축종은 거의 없다. 말(馬)이 교통수단과 경마(스포츠)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아 왔다면 사슴은 말(馬)을 대체할 수

있는 축종이기도 하며 개(犬)와 같이 애완용으로 길들여 애완동물(PET)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유럽 북부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순록이란 사슴은 말대신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특히 크리스마스 시절에 눈썰매 끄는 동물로 아이들과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역축(일소와 같이 힘을 쓰는 동물)으로 뿐만 아니라 경마(競馬)산업과 같이 경주용으로 순록을 관광산업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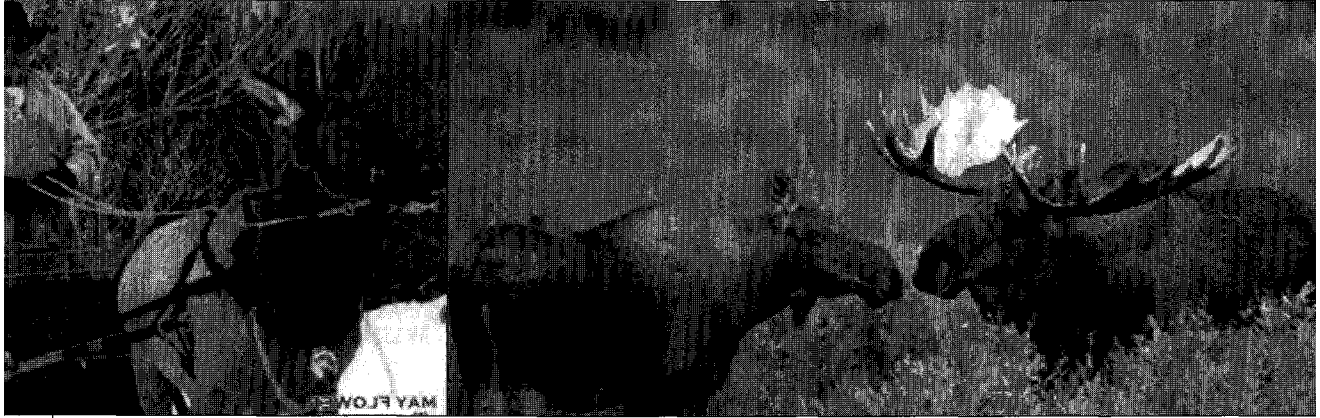
사슴의 녹용은 무게 단위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이다. 고급 소고기가 kg당 2만원 한다면 현재에도 사슴 녹용은 kg당 15~30만원쯤 한다. 사향노루는 사슴 산물로 사향이라는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은 g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호가한다고 한다. 어떤 산업의 산물(産物)이 무게 단위로 사슴 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있을까 반문(反問)해 보라. 일찍이 사향을 이용한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으로 화장품과 향수산업을 석권하고 있다. 향수 산업은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 근원이 바로 사슴(사향)이라고 장담해 보라.

우리나라 사슴 사육농가는 약 2만 호로 사육두수는 20만 두(頭)에 이른다. 가축으로서 사육하는 두수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으며 그 산물(녹용)의 소비량도

최고로 많다. 그러나 소비량의 대부분을 슬프게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알짜없이 단순히 사슴을 키우고만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양육산업의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갖춘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잘 정비된 조직은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조직력이 강화된 단체는 구성원의 기술력도 상향 평준화되어 대외신뢰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양육산업이 기술력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문화 예술(스포츠 포함)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때 양육 대국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양육산업이 단순히 사슴만을 잘 키우는 축산업이 아니라 사슴이 근간이 된 부가가치 높은 축산업, 사슴이 근간이 되는 한의학, 의료, 약품, 환경, 문화, 예술, 과학 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꿈을 일구는 산업으로 함께 성장하여야 한다. 진정한 양육 대국으로 자리매김 될 때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 양육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스템으로 수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슴에 근간하는 한의학 산업, 시설산업, 양육 과학 산업, 스포츠산업 등등...

2002년 새해에는 양육산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양육인이 사슴으로부터 자부심이 배(倍)가 되어



▲ 엘크(역용) ▲ 무스

양육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사슴의 종류(예)

평생 올해를 잊지 못하는 양육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몇 년 전 본인이 양육 산업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적인 사슴 번식, 사양관리에서 평소 느낀 기술적 개선방안을 새해 문안 인사와 함께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슴도 일반가축과 마찬가지로 축군을 젊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축종(畜種)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슴도 노령화된 축군에서보다 젊은 축군에서의 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녹용 생산량만 가지고 녹용생산량이 많은 나이 든 축군을 보유한 농가보다는 적절한 나이까지의 젊은 축군을 보유한 농가가 훨씬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유 축군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장에서는 폐사 우려가 높고 관리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즉 노령화된 축군에서는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사슴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조기이유를 통한 자육의 개체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번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정을 동시에 유도하여 추후 분만이 일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육 및 개체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녹용생산성과 관련된 수사슴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해 녹용생산성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영양관리 및 에너지손실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슴은 정관수술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양방 소모적 경쟁에 의한 종로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종로의 폐사가 일부 다른 수사슴과의 소리지르기 경쟁에 의한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장간의 적절한 거리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정기적인 구충으로 내외부 기생충구제에 의한 소모성 질병에 의한 생산성저하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기타



▲ 마우스디어



▲ 순록 ▲ 사향노루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사양관리의 합리적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우리는 고정관념과 인식부족으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워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지(無知)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다. 몰라서 힘들었던 것은 배워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 힘든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 기회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배울 수 있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 바로 그 차이는 기술습득과 정보수집에 있으며 알고도 행하지 않음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못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술력의 무장보다도 지혜와 통찰력으로 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방식의 전환은 생산성의

향상을 수십, 수백 배 가능하게 하지만 기술력의 개발은 몇 십 퍼센트밖에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당장 사슴산업에 대한 무궁무진한 꿈을 꾸어보자. 그리고 이제부터 녹용위주의 양록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을 통한 즐겁고 유쾌한 양록산업이 되도록 각자 동상이몽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양록인들이 축산부국을 일구며 쓰러져 가는 축산업과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자.

**인국양록**

〈사슴 번식기술 문의〉

TEL:041-580-3339, FAX:041-582-4267

이장희 H·P:017-743-8496

E-mail: janghee@rda.go.kr(축산기술연구소)